



회원사 소식

▣ 푸드머스 'CP 도입 1주년 선포식' 개최

CCMS 도입 선포식도 개최...CP와 CCMS 운영을 통한 '바른마음경영'의 구체적 실천 다짐



철저한 고객지향적 사고로 고객중심의 고객기쁨경영을 실천해 온 푸드머스(대표 제한주)는 지난 3월 2일 공정거래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CP 도입 1주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 해 3월 자발적인 공정거래 준수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발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도입했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도입 1기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리고 선포식은 전 임직원에게 '7Factor'의 구축과 가

맹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그리고 CP 뉴스레터의 발행 등 지난 1년간의 CP 운영 현황 및 향후 CP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구성됐으며, 선포식 후에는 전 임직원이 한국공정경제연합회의 홍미경 사무국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제로 한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다.

푸드머스는 또한, 지난 1월 4일 고객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CCMS)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

푸드머스는 CCMS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고객불만처리정책과 경영이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불만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CCMS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한주 대표이사는 "고객기쁨경영'과 '공정거래 준수'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푸드머스의 핵심 경영 이념인 '바른마음경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조직원이 CCMS 및 CP의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CP와 CCMS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된 이우봉 경영지원실장도 "CCMS 도입을 통해 고객지향적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공정거래 준수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발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 롯데백화점, 서울대 연계해 임원들 공정거래법 교육 실시

롯데백화점(대표 이철우)은 3월 3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와 연계해 본사 임원과 전국 27개 점포 점장 등 43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진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협력사 등과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설된 이번 교육은, 실무자들이 익히던 공정거래 지식을 임원과 점장들도 직접 배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 과정이 마련된 것.

특히, 임원들이 수강하는 공정거래법 과정을 서울대 법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은 유통업계에서는 처음이다.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 하는 만큼 교수진도 탄탄하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권오승 서울대 경쟁법센터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 일반과 유통업 관련 법규, 사례 등을 강의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001년에 유통업계 최초로 CP를 도입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면서 "이번 교육 역시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 두산건설, 올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계획안 공개

두산건설(대표 김기동)은 지난 2월 10일 올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현황 및 계획을 공시했다. 지난 2월 각 팀 CP 담당자를 지정한 두산건설의 올해 CP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오는 4월에 CP 자율준수 의지 표명을 위해 CEO 메시지를 공지하고, 6월에는 자율준수 실천 메시지 전파와 전 임직원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두산건설은 제4차 자율준수 편람 개정 및 배포를 비롯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 현장의 과(부)장 및 범위만 가능성이 큰 부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CP 사이버(Cyber)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공정거래 전문 연수과정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하도급법 특별교육에 임원을 참석시키고, 하반기 중에는 외부강사 초빙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상·하반기에 걸쳐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사내 인트라넷 CP 폴더 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CP 편람 E-Book 개정 후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문서관리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랜드그룹, 동아백화점 인수 본 계약 체결

이랜드그룹 산하 이랜드리테일과 화성산업이 3월 12일 동아백화점 유통부문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백화점 유통부문의 인수금액은 2,680억 원으로 결정됐다.

상호는 '동아백화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100% 승계하기로 한 기존 양해각서(MOU) 내용 역시 그대로 합의했다.

이랜드그룹측은 3월 15일부터 동아백화점 경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에 착수한 뒤, 주주총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까지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회원사 소식



▣ 롯데쇼핑, GS마트 14개 및 GS스퀘어 3개 점포 인수

세븐일레븐도 2740억에 바이더웨이 인수

롯데쇼핑은 지난 2월 9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마트 14개 점포와 경기 부천, 구리, 안산 등 GS스퀘어 3개 점포의 인수를 위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1조 3,400억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롯데는 GS마트와 GS스퀘어 백화점사업부 전체 임직원 2,600명의 고용승계 와 4년 이상 고용보장에도 합의했다. 롯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 등을 거쳐 GS스퀘어와 GS마트를 롯데쇼핑에 합병한 뒤 각각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로 상호를 변경할 계획이다.

롯데는 이번 인수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 ‘바잉 파워(Buying Power)’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GS마트 인수로 롯데마트는 총 점포 수 84개가 됐으며, 매출은 2009년 기준 5조 2,950억 원이 됐다. 롯데마트는 올해 국내 신규 점포를 10개 이상 개장해 연말까지 100개가량의 점포망을 구축함으로써 1, 2위 업체인 이마트(127개), 홈플러스(115개)를 바짝 쫓겠다는 전략이다.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는 “올해 경쟁사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인수한 14개 점포도 이른 시간 안에 효율 개선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백화점 부문에서도 GS스퀘어 인수로 전국에 29개 백화점을 확보해 2위 현대백화점과의 격차를 11개로 벌렸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서울 청량리 신역사점과 부산 광복점 신관, 그리고 아웃렛 대구 율하점 등 신규 점포 3개를 개장한다.

이철우 롯데백화점 사장은 “이번 GS백화점 인수를 통해 기존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백화점 1위 자리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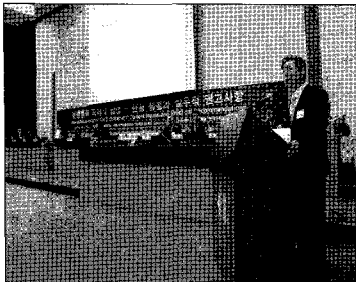
한편,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세븐일레븐도 편의점 업체 바이더웨이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1월 25일 바이더웨이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PEF) 유니타스캐피털과 주식 양·수도 계약(SPA)을 맺었다고 밝혔다. 인수금액은 2,740억 원 수준이다.

세븐일레븐은 기존 점포 2,200여 개에 새로 인수한 바이더웨이 점포 1,200여 개를 합쳐 3,400여 개의 점포망을 갖추어 시장점유율이 약 26%로 상승됐다.

▣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법 국제세미나’ 개최

미국 깁슨 던 앤 크러처,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



법무법인 (유)화우는 미국의 저명한 로펌인 깁슨 던 앤 크러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후원하는 ‘공정거래법 국제세미나’를 3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 현행 쟁점과 실무적 권고사항’ (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Current Issue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를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Gary

Spratling 변호사를 포함한 미국의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의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과 시장감시국 간부 등의 발표와 토론으로 최근의 경쟁법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부위원장은 ‘2010년도 공정위 업무방향’을, 김석호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에 대한 국내외 법집행 동향’을, 김준범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제적 남용행위의 입증’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법 집행(International Cartel Enforcement, The New Reality)를 비롯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 (Abuse of Dominance Enforcement; The New Global Focus On Single-Firm Conduct) 그리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과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우선순위’ (Compliance Programs and Training; The New Priority For The Global Economy)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경쟁법 정책 기초와 집행 현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화우의 윤호일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국제관계가 빈번한 기업들이 분쟁사례를 이해하고 대처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이날 세미나를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공정거래법 국제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과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160여 명의 임직원과 사내 변호사 등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회원사 소식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0년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진행



지난해 여섯 차례의 정책세미나와 국제학술대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권오승)가 올해 창립 2년차를 맞아 '2010년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의 주제는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 제1주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과 조직상의 문제점'에 대해 법무법인 세계의 오진환 변호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동열 변호사가 제2주제인 '공정거래법 집행상의 제 문제'를, 그리고 마지막 제3주제였던 '공정거래법상 사건처리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해 공정위 정중원 국장이 주제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국 교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 김형배 과장, 법무법인 세종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윤성운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각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 한국경쟁법학회 '2010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제문제'에 대해 종합토론 전개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신현윤)는 지난 2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관련된 제 문제'를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계학술대회의 본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제1부와 제2부는 주제발표와 토론, 그리고 제3부는 종합토론의 형식으로 구성됐다.

제1부의 제1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지도원리와 발전 방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정중원 국장이, 제2주제는 '공정거래위원

회 사건처리절차의 실무상 쟁점과 과제'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아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제2부는 부경대학교 김두진 교수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 유형의 제 문제'로 제1주제를, 영남대학교 심재한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 문제'에 대해 제2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양명조 교수가 진행을 맡은 제3부에서는 명지대학교 홍명수 교수, 중앙대학교 조성국 교수, 경북대학교 신영수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김형배 과장, 김&장 법률사무소 홍석범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손금주 변호사가 참석한 종합토론으로 마려되어, 이날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 한진해운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한진해운홀딩스는 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 심사결과 통지 공문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는 자회사로 한진해운과 싸이버로지텍을 두게 된다. 자산구성비율은 각각 62.75%와 4.08%이며, 보유지분율은 12.20%, 40.00%다.

■ 현대미포조선, 사외이사에 이병주씨 선임

현대미포조선은 3월 12일 이병주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병주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OECD 경쟁 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장에 홍진표 교수 선출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3월 16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해 신설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 6인과 내부인사 5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공정경쟁규약 심의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또한, 개정 공정경쟁규약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무지침인 세부운용기준(안)을 승인하고, 4월 1일부터 규약의 본격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제약협회는 3월 중 회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